

김상환 교수 ‘제3차 한일라운드테이블’서 밝혀

등록일 : 2017-06-01

“한일터널 기술적 문제없다…세부연구는 더 해야”

김상환 교수 ‘제3차 한일라운드테이블’서 밝혀



한일터널 건설을 위한 기술적 과제를 검토하고 최적안을 새롭게 제시하는 한일 양국 전문가 회의가 부산상회에서 열렸다.

한일터널연구회는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글로벌포럼, 부산을 가꾸는 모임 등과 함께 지난 5월 24일 부산상의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한일해저터널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각국의 해저터널 건설 사례를 살펴보고 한·일간에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데 있어 기술적 검토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이종출 부경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의 사회로 호서대 토목공학과 김상환 교수가 ‘한일해저터널의 기술적 검토’를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다케우치 유조(竹内雄三) 국제하이웨이재단 기술위원장, 박광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부회장, 이경준 동아지질 기술상무, 부산대 정현영 교수, 최치국 전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실장 등이 참여했다.

김상환 교수는 전 세계에 시공 중이거나 운영 중인 해저터널 사례를 소개하고 기존에 제시된 해저터널 노선안을 검토해 최적 노선을 제시했다. 김 교수가 조합한 최적 노선안은 Route K1+J1, Route K1+J2, Route K2+J1, Route K2+J2 등 4가지다. 이 중 가장 짧은 노선은 강서구~대마도~이끼섬~가라쓰를 연결하는 총 연장 278.4km의 Route K2+J1 노선이다. 이어 “한일터널 건설은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세부적 연구는 더 필요”고 말했다.

토론에서 다케이치 기술위원장은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세이칸터널 건설현장에서 경험해 본결과 대부분 해저 200 아래서 공사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공사가 예상된다”며 “5~10km 장거리를 굴착하는 장비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준 동아지질 기술상무는 “현재 국내는 해저단면도가 거의 없다”며 “해저 대심도를 로봇 등으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특정 해역에서 수 킬로미터의 시험용 터널을 뚫어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의택·이용흠 한일터널연구회 공동대표, 한승완 경상대 이사장, 임효일 UPF 거제지부장, 김영길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 거제 회장, 손동훈 가정연합 거제교회 목사 등 각계인사 50여명이 참석했다.